





井上靖氏一九九一年一月三十一日逝世

### 風濤 (30) 井上靖 著

「折과 같이 개정 북부(北部)에 있는 봉은사(奉恩寺)에도 착하였다. 절 문간에 들어가 자마자 두사람(金方慶父子)은 반죽(番卒)에 포박되었다. 완전히 쇠인쇄품을 당했다. 김방경(金方慶)을 취조(取調)하기 위하여 고려측(高麗側)의 재신(宰臣) 수명이 출석했는데 처음부터 홍다구(洪茶丘)의 고압적 태도(高壓的態度)에 놀려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했다. 취조(取調)하는 측에는 홍다구(洪茶丘)외에 홍도(忻都)도 얼굴을 보여 있는데 홍도(忻都)도 또 자기 한마디도 말참견을 하지 않고 만사(万事)를 홍다구(洪茶丘)의 하는 대로 맡겨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홍다구(洪茶丘)는 전역(前) 자기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을 정지시킬 힘을 가지

고 있지 않다. 일은 반란(叛亂)에 관해서이고 홍다구(洪茶丘)에 그 전권(全權)이 있었다. 눈썹인 진눈가비가 방장(方丈)의 앞뜰에 떨어져 홍다구(洪茶丘)를 적시고 김방경(金方慶)을 적시었다. 홍다구(洪茶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김방경(金方慶)을 무복(誣服)시키지 않고서는 잠을 수 없는 태도(態度)를 취했다. 김방경(金方慶)은 무슨 일을 당해도 홍다구(洪茶丘)의 추구하고자 하는 말을 절대(絶對)로 버리고 하지 않았

다. 김방경(金方慶)의 살은 찢어져 유혈이 낭자하고 기절(氣絶)했다. 홍다구(洪茶丘)는 흥분(興奮)이 나서 홍다구(洪茶丘)는 충렬왕(忠烈王)에게 말했다. 「때는 바야흐로 대한(大韓) 우설(雨雪)은 그치지 않고 왕(王)도 또 신문(訊問)에 피로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방경(方慶)으로 하여금 죄(罪)를 복종시킨다면 죄는 단 한 사람에 그칠 것이고 그 죄야말로 유배(流配)밖에 되지 않습니다. 방경이 쓸데없이 죽음을 택하는 마음을 알수 없

읍니다.」 충렬왕(忠烈王)은 김방경(金方慶)의 고등스리울 것을 보다 못하여 김방경(金方慶) 있는 곳에 가까이 가서 눈물 흘리며서 그 무복(誣服)을 권했다. 그러자 김방경(金方慶)은 「왕(王)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신(臣)은 졸병(卒兵)으로부터 시작하여 재상(宰相)의 지위까지 올랐음니다. 간뇌(肝腦)간과 뇌( 뇌)를 땅에 짓어도 나라의 은혜에 보답(報答)할 길이 없습니다. 나

의 생명을 아끼려고 무복(誣服)해서 사직(社稷)에 배신(背信)한다면 말입니까.」 라고 말했다. 충렬왕(忠烈王)에게 그는 홍다구(洪茶丘)가 자기 자신이 광인(狂人)같이 되어 지금 필사적(必死的)으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수 가 없었다. 그러나 김방경(金方慶)은 잘 알고 있었다. 김방경(金方慶)은 홍다구(洪茶丘)의 얼굴과 같이 세조(世祖)의 후비(后妃)의 얼굴이 눈에 떠 올랐다. 젊은 무장(武將)의 무류(無類)의 냉혹(冷酷)함이 창백(蒼白)한 얼굴에 가득 찼다. 세조(世祖)의 사소(私心)에 구애(拘限)되는 큰 온안(溫顔)이 지극히 자연히 눈에 들어오곤 하였다. 김방경(金方慶)은 또 홍다구(洪茶丘)의 소리와 같이 세조(世祖) 후

비라의 소리를 듣는 것 같아 주류군(駐留軍)을 배치 하였다. 홍다구(洪茶丘)의 조고저 자비령(慈悲嶺)을 정제금도 인간의 감정(感情)이 섞로 해서 원나라가 자기 손에 있지 않은 소리는 자기에게 넣은 북계(北界), 서해(西海) 호두금(虎頭金)을 하의 땅과 같이 반도의 남부를 사한 세조가 온정(溫情)에 넘친 의지(意志)로 할려고 하는지는 얼굴을 고쳤을 때 다음 것이었다. 그러나 김방경(金의 순간(瞬間) 같은 입으로서 方慶이 말하는 것은 인제나 나오는 소리가 들릴 없었다. 마찬가지로 김방경(金方慶)은 알고 있었 「소국(小國)이 대국(大國)을 무복(誣服)시키는데 따라 이것을 사랑하는 것은 어버

서 언어지 않는 세조(世祖) 이와 같이 어찌 하겠음 배 후비라이가 구하고 있는데 반하고 어버이를 거역해서스 다른 것이 없었다. 가령 세조(世祖) 멸망(滅亡)을 취할수 있는가 이 일을 홍다구(洪茶丘)에 져는가. 죽을지언정 무복(誣 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또 服할수 있는 없다. 죽일때면 죽 세조(世祖)와는 아무 관계없으라」

이 홍다구(洪茶丘)가 자기만 고문(拷問)을 받고있는 김 의 생각으로서 자기만으로서 방경(金方慶)은 물론이려니 한일이라고 하여도 역시 거와 취조를 하고 있는 홍다구 기에는 세조(世祖) 후비라이(洪茶丘)도 또 심히 지쳐버렸 의 힘이 움직였다고 말할 수다. 벌써 서로 말할수 있는 있었다. 홍다구(洪茶丘)를 진일이나 할수있는 일은 전부 국상장군(鎮國上將軍)에 임명(任命)하고 할수있는 느낌이었 명(任命)한 것은 만사(萬事)가 다. 그날 저녁(夕)에 칠갑(七) 니고 세조(世祖) 후비라이(洪茶丘)를 감춘 죄명으로 김방경(金

김방경(金方慶)은 죽임의 方慶)은 대청도(大靑島)로 아 고통을 받으면서 때리면 맞들(打)은(打)은 백령도(白翎島) 을수록 순간적(瞬間的)으로 로 유배(流配)함으로써 조사 정신이 뜨거워지고 되살아나는 끝났다. 다른 사람들의이 는 때가 있었다. 그러할때만 사(關係者)는 전 방경(金方慶)은 철안이된 홍 부석방하였다. 반사(半生)半 다구(洪茶丘)의 얼굴이 필사(死生)의 초라한 모습으로 적(必死的)으로 구하고 있는 여(與)가(가)에 태워져 홍국 것이 손에 잡힐듯이 알았다. 사(興國寺)로 운반하여 나온 그것은 자기에게 원한을 가 김방경(金方慶) 부자(父子)

지고 자기를 죄의 함정에 몰는 삼일후에 몸의 회복을 기 아날을려고 한것은 아니었다. 다려서 각각 유배지를 향하 자기를 무복(誣服)으로서 자기 여 개경을 출발하였다. 두사 에게 반심(叛心)이 일라고 말받은 충렬왕이 내준가(與) 하는데 따라서 그것을 구실에 타고 같은 수자의 원나라 (口實)로 하여 고려에 원군 군대와 고려에 호위되어 왕 (元軍)을 투입시키는 이외에 경(王京)開京의 남문을 나

닫는 곳마다 다루가지(達魯) 곡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折과 같이 개정 북부(北部)에 있는 봉은사(奉恩寺)에도 착하였다. 절 문간에 들어가 자마자 두사람(金方慶父子)은 반죽(番卒)에 포박되었다. 완전히 쇠인쇄품을 당했다. 김방경(金方慶)을 취조(取調)하기 위하여 고려측(高麗側)의 재신(宰臣) 수명이 출석했는데 처음부터 홍다구(洪茶丘)의 고압적 태도(高壓的態度)에 놀려서 한마디도 입을 열지 못했다. 취조(取調)하는 측에는 홍다구(洪茶丘)외에 홍도(忻都)도 얼굴을 보여 있는데 홍도(忻都)도 또 자기 한마디도 말참견을 하지 않고 만사(万事)를 홍다구(洪茶丘)의 하는 대로 맡겨둔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홍다구(洪茶丘)는 전역(前) 자기 눈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일을 정지시킬 힘을 가지

고 있지 않다. 일은 반란(叛亂)에 관해서이고 홍다구(洪茶丘)에 그 전권(全權)이 있었다. 눈썹인 진눈가비가 방장(方丈)의 앞뜰에 떨어져 홍다구(洪茶丘)를 적시고 김방경(金方慶)을 적시었다. 홍다구(洪茶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김방경(金方慶)을 무복(誣服)시키지 않고서는 잠을 수 없는 태도(態度)를 취했다. 김방경(金方慶)은 무슨 일을 당해도 홍다구(洪茶丘)의 추구하고자 하는 말을 절대(絶對)로 버리고 하지 않았

- 各派會長 (理事兼任除外)
- 都評議公派會長
  - 大護軍公派會長
  - 翼元公派會長
  - 密直司使公派
  - 開城尹公派
  - 都事公派
  - 典書公派
  - 副使公派
  - 大司成公派
  - 安靖公派
  - 都評議公派
  - 大護軍公派
  - 提學公派

- 潤道 在 在 德 奉 昌 奎 相 得 相 良 東 鳳 鶴 康 炳 弘 琮 喆 光 圭 在 承 正 潤 爽 在 尚 相 仲 惠
- 會 (서울 奉天 七洞)
  - 會 (서울 杏堂洞)
  - 國 (서울 貞陵洞)
  - 錫 (서울 上溪洞)
  - 鋪 (坡州 汶山)
  - 洙 (경기 坡州)
  - 教 (경기 華城)
  - 會 (忠南 全義)
  - 殷 (仁川 玉蓮洞)
  - 恒 (江原 鐵原)
  - 日 (서울 背洞)
  - 會 (서울 松坡洞)
  - 會 (서울 龍江洞)
  - 會 (忠南 公州)
  - 善 (경기 城南市)
  - 錦 (慶北 義城)
  - 秀 (慶北 義城)
  - 會 (서울 草洞)
  - 默 (서울 東子洞)
  - 默 (全南 咸平)
  - 喆 (忠南 並川)
  - 榮 (忠北 清州市)
  - 沃 (忠南 並川)
  - 譽 (忠北 清州市)
  - 奎 (忠南 並川)
  - 善 (서울 社稷洞)
  - 會 (仁川 問石洞)
  - 華 (忠北 清州市)
  - 寅 (忠南 內板)
  - 演 (忠北 梧倉)
  - 會 (忠北 梧倉)







# 動 靜

- ★지난 9월 9日 清州市内에 居住하는 按廉使公派 參議公花樹會 宗人 40名은 章會 會長引率로 安東의 忠烈公先祖 墓所와 檜谷洞 祖妣 竹州朴氏 墓所를 參拜하고 崇祖理念을 심었다.
- ★大邱市内에 居住하는 宗인들이 뜻을 모아 安東金氏 大邱靑壯年會를 結成하고 月例會를 開催하여 崇祖睦族理念을 鼓吹시키며 先祖墓 所의 參拜와 先祖遺蹟地 巡禮等 行事를 實踐하고 있다.
- ★大宗會 名譽會長 明會氏께서 10月15일부터 美國뉴욕에서 開催하는 世界著名人士들의 모임인 第16次 世界 評議員會議에 參席하였다.
- ★大宗會에서는 安東, 檜谷洞의 祖妣竹州朴氏 墓域에 齋室을 建立하 여 지난 11月26日 時享에 맞춰 竣工하였다.
- ★安東金氏 龍仁郡宗親會에서는 前會長 長卿氏가 辭任하고 郡事公派 金漢德(默)氏가 會長으로 選任되었다.
- ★지난 11月15日에 忠北 陰城郡宗親會 會長 提學公派 泰變氏의 引率로 全貫버스를 貸切하여 宗人 40餘名과 같이 清州, 梧倉의 按廉使 公 先祖墓所에 參拜하고 揚平 木旺里의 翼元公 先祖墓所도 參拜 하여 崇祖睦族理念을 昂揚하였다.
- ★지난 11月15日 서울·光化門에 있는 서울신문社 社屋 20層, 멤버스 클럽 홀에서 西峰 金思達博士의 6週忌를 맞아 白溪 朴衡圭 先生께서 金博士의 一代記「영광은 햇빛처럼」을 著作하여 出版記念會를 盛大하게 가졌다.
- ★지난 11月19日 安養市 石水洞에 居住하시는 按廉使公派 在禮宗親 은 婦人과 子婦 3名을 引率하고 大宗會事務室을 尋訪하여 祖上和 宗務를 보는 任職員을 紹介하여 敬祖에 對한 實際教育을 하였다.
- ★지난 11月21日 清州梧倉에 모셔있는 按廉使公 先祖時享日에 大宗 會 泰享會長께서 參祀하셨으며 安東 忠烈公先祖任 墓域買入에 對한 報告가 있었고 宗人들의 拍手喝采를 받았다.
- ★지난 11月21日 清州梧倉의 按廉使公先祖 時享을 마치고 墓庭에서 1990年度 定期總會를 가졌다.

# 宗中行事



上洛齋全景

大宗會에서는 安東郡 豐山邑 檜谷洞에 모 서있는 祖妣竹州朴氏 墓域에 齋閣을 新築할 것을 決定하고 지난 十月二十六日에 着工하여 十一月三日 上樑式을 舉行하고 또한 墓域淨化 事業을 並行하여 駐車場으로 使用할 수 있는 路 整地作業과 同時築臺도 쌓고 담장도 四九石 으로 쌓아서 遺墟碑閣과 上洛齋 駐車場施設 管理人舍宅을 갖추어 墓域淨化事業을 完備하 고 지난 十一月二十六日에 祖妣時享에 時祭奉 行과 同時에 上洛齋竣工式의 告由祭를 參祀 人百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盛大하게 奉行 하였다.

## 上洛齋新築竣工式奉行

# 臨時總會 會議錄

日 時 1990年 11月24日 午後 8時  
場 所 慶北 安東郡 祿轉面 竹松洞 忠烈公先祖齋室 管理人舍宅

出席人員 102名  
討議案件 時享行事 및 節次問題에 對하여  
議 長 常任副會長 崙會氏 發議

지금 忠烈公할아버지 時享에 獻官問題로 曰可曰否 是非가 紛紛 한데 嚴然히 大宗會가 있고 當然히 大宗會 會長이 初獻官이 되 어야함에도 不拘하고 前年度에 이미 斷사람으로 初獻官을 決定하 였으니 그분이 初獻官을 해야 한다며 大宗會 會長이 아닌 다른사 람으로 하겠다는 態度이니 初獻官을 大宗會長으로 해야 하겠습 니까, 아니면 이미 前年度에 決定하였다 하여 前年에 決定된 斷 분이 初獻官을 해야 하겠다는 兩論이 있으니 이에 對하여 여러분 의 意見을 묻겠습니다. 昨年에 大宗會에서 初獻官을 미리 決定한 事實도 없고 總務라는 사람이 제멋대로 個人的으로 大宗會 指示 도 없이 定했다는 것은 言語道斷 입니다.

翼元公派 江陵 秉默氏  
忠烈公할아버지의 後孫이 15派로 分布되어 있으나 統率機關인 大 宗會가 嚴然히 있으면서 우리 安東金氏를 總括하고 있는 이 時點 에 當然히 大宗會에서 모든 執行事項은 決定해야 한다는 것을 動 議합니다.

翼元公派 議政府 明勳氏  
獻官이나 時享行事準備나 모든 問題는 마땅히 大宗會에서 主管 하여야 되며 既히 決定된 것을 無視하고 大宗會決定에 따를것을 動議합니다.

議 長 지금 動議에 異議가 없습니까? 없으면 拍手로 贊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全員이 滿場一致로 拍手贊成, 한사람도 異議者가 없었음.

議 長 그러면 滿場一致로 可決된 것을 宣布합니다.  
議 長 그러면 初獻官은 大宗會會長 泰亨氏가 하고 앞으로 모 든 行事는 大宗會에서 管掌하는 것을 決定합니다.

翼元公派 安東 明植氏  
이 總會에서 滿場一致로 可決된 것을 反對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러나 前例가 잘못됐거나 既往 決定된 初獻官 內定者에 對한 禮 遇는 있어야 한다고 生覺합니다.

議 長 이미 決定된 것이니 諒解를 바라며 이에 對해서는 再論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會 長 泰亨氏

지금 初獻官問題로 曰可曰否 말이 많아서 臨時總會를 開催하고 이자리에서 可否를 決定하였는데 忠烈公 享祀의 初獻官만은 大 宗會長, 副會長 등이 代表로 내려왔을때는 勿論 大宗會에서 代表 로 내려온 사람이 初獻官을 하기로 되었으며 지금 여러 宗人들께 서도 아무 異議없이 可決되었습니다. 昨年에 大宗會 總務로 내려 왔던 사람(지금은 退任하고 없음)이 自己任意로 位階秩序를 紊亂 시켜가며 事前報告도 없이 獨單的으로 任意指名한 事實에서 이 런 不詳事가 일어나서 未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자리에서 初 獻官을 辭任하겠아오니 이미 決定된 분으로 初獻官을 讓步하겠습 니다.

議 長 崙會氏  
이것으로 臨時總會를 마칠것을 宣布합니다.

## 正儀公派 派譜刊行公告

지난해 十月二十日 理事會의 決議에 依하 여 다음과 같이 收單業務를 取扱하고 있아오 니 隣近宗親과 相互連絡을 하셔서 宗中의 어 려운 事業에 積極協助하여 주시기를 仰望하 나이다.

- 一、收單期間一九九一年 十月 末日限
- 二、收單金 및 派譜代金 未定
- 三、收單接受 및 連絡處

京畿道 咸南市 城南洞四一七四  
派總務 金 洙 東  
電話 (〇三四二) 七五四一四〇六七  
安東金氏 正儀公派宗會 會長 金 允 會

### 按廉使公派

金 雲 會

서울·龍山區 西水庫洞 新동아APT 7동 801호

### 按廉使公派

金 允 植

서울·道峰區 道峰洞 480

### 提學公派

金 允 植

忠北 槐山郡 沙梨面 水岩里

### 翼元公派

金 允 植

서울 永登浦區 汝矣島洞 시범APT







# 壇論

## 祖宗의 姿勢

創世나 國基의 始初는 神話로 始作하는 것이 通例이다. 그러나 姓氏의 始祖는 實存人物을 根基之本으로 繼承하고 繁族하여 傳來되어 내려오는 것이 通例이다. 어느 姓氏를 莫論하고 自己祖上이 훌륭하였고 名賢碩學, 勇將烈士, 名儒守節이셨다고 追仰하고 또한 開國功臣이다. 高官大爵을 지나셨다고 記錄되어 있는 것이 族譜인 것도 史實이다. 어느 子孫된 사람이 自己祖上이 못났다고 記錄해놓은 譜冊은 없다고 斷定한다. 그러나 한가지 特異한 것도 있다. 우리 몇 代祖께서는 財産이 몇 千石, 몇 萬石의 富豪로서 活人積德을 했노라고 記錄된 譜冊도 없다. 財物은 貪慾의 根源이요, 禍를 自招하는 것이기 때문에 敬遠하는 것이다.

君子는 同道而爲朋하고 小人은 同利而爲朋이라. 그런故로 財貨를 멀리했다. 그러나 祖上을 崇拜하고 子孫間에 親睦하자는데 큰뜻이 있으나 子孫中에 經書一讀도 못한 못난者가 爲憑營私하거나 暴惡無道하고 放蕩한 者나 奸計奇巧를 써어가면서 宗事를 憑藉하여 貪慾한 나머지 宗中財産을 搾取하는 者 私有化하는 者 등이 있어서 分派 反目하다가 祖上 墓地를 失傳하는 事例가 非一非再한 것이 史實인 것이다.

同姓同本은 系世를 찾아서 올라가보면 結果는 한사람이 繁族하여 分派된 것 即 忠烈公 할아버지의 化身이 只今의 生存하고 있는 나 自身인 것이다. 그러므로 祖宗은 雖遠이라도 祭祀不可不誠이라고 옛 聖賢은 말씀하였다. 先祖任의 人品이나 德望, 心性, 父母任에 對한 孝誠, 萬人에 對한 德行, 國家에 對한 忠誠等 列舉하기 어려운 燦爛한 業績을 後孫된 者는 精誠을 다하여 崇慕하여야 하는 것은 當然하고 宜當 지켜야할 子孫된 義務이기도 하다. 그러기 때문에 子孫들은 生活의 어려움을 克服하고 祖上崇拜理念으로 棼棼이 모은 돈으로 墓所領域도 整頓하고 石物丹裝도 하고 時祭日을 定하여 年年會同하여 行禮도 하고 親睦도 圖謀하는 것은 참다운 子孫된 道理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反面으로 宗事를 憑藉하여 私利私慾을 차리는 者도 있고 宗土를 팔아먹는 者 宗土가 姓名儀로 있다고 賣却하여 着服하는 者도 있다. 系世不明者를 籠絡하여 私腹을 채우는 醜雜한 者가 있는 反面 眞心으로 宗事に 熱誠을 가지며 心身과 財貨를 아끼지 않고 盡心竭力 崇祖睦族理念을 具顯하기 爲하여 精誠을 다 받치는 者도 많다는 것을 強調하고 싶다.

祖宗은 百代之親이라는 天倫을 認識하고 時代의 變遷과 改化된 世態에 生存하는 우리는 祖宗間에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느냐 하는 것이다. 나는 잘났으니 宗事程度야 내알바 아니다 하고 彼岸의 火災視하는 態度는 참으로 寒心스럽고 可矜하기도 하다. 富를 蓄積하였으니 宗事に 金品要求를 忌避하여 敬遠하는 痴者도 있다.

祖宗의 崇祖睦族하는 精神은 靑山보다 푸르고 河海보다 넓은 雅量과 理解로써 또한 讓步와 獻身의 奉仕精神을 發揮하여 智性的이고 互惠의 妥協으로 成果結實되게 하여 大宗族임을 誇示하고 온世上에 뉘뉘하게 具顯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祖宗의 根本은 有服之親을 爲始하고 그 寸數가 넘어선 血緣을 族親 또는 一家라고 하여 行列보다 年長尊待를 하면서 同祖之誼에 따라 宗中 또는 門中을 이루고 血緣間에 系統과 昭穆을 밝히고져 族譜를 만들어 族誼를 敦篤하게 하고 祖上의 墓를 찾아 祭祀를 지내는 뜻은

## 賢守齋建立

1. 名稱 賢守齋
2. 所在地 慶北 晉陽郡 集賢面 冷井里 山1
3. 着工日 1983年 2月 10日
4. 竣工日 1986年 6月 1日
5. 總工事費 5,100萬圓
6. 關與世帶 所在地門中 25世帶
7. 懸板揭示 1990年 3月 日 主管者 金在華

이 賢守齋를 建立한 것은 齋室所在地의 諱, 瓊先祖를 主位로 하고 門中의 25世帶가 어려운 形便을 不顧하고 뜻을 모아 成就하였으며 崇祖睦族하는 理念을 기리는 事業으로 높이 讚揚하는 바이다.



그 遺德을 기리는 한편 오늘에 自己自身の 存在가 곧 祖上의 德인 點을 잊지않는 追遠報本이라 하며 이러한 眞理의 集合構成된 것이 곧 宗親會 또는 花樹會로 크게는 大宗會로 發展昇華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神聖한 宗親會의 集合體는 오로지 眞心으로 崇祖睦族하는데 大意義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義務를 忘却하고 一時的으로 計策奇巧를 써서

宗中財産을 變態使用한다는 것은 言語道斷이며 語不成說이다. 例舉컨데 安養에 모셔있는 文英公先祖任의 遺德을 永世不忘하고 時享奉祀를 爲하여 일찌기 先代族親들이 貧困했던 時代에 어렵게 거두어서 모은 爲士나 宗中財産이 都市가 發展되고 地價上昇이 되어 宗中財産이 相當額으로 불어나는 것을 奇貨로 全宗人의 意思도 無視하고 各派가 分配하여 나누어갔다는 事實은 實로 先祖에 對한 不敬이요, 現世族親에 對한 不睦이라 寒心스럽고 可矜한 處事인 것이다. 어떻게 提案發議해서 處理된 것인지 疑問이다. 各派分配를 하지말고 그 財産으로 큰建物을 買入하여 그 建物의 收入金으로 文英公先祖任의 遺德顯揚事業을 하고 後孫의 英才教育에 獎學基金으로 쓰던가 얼마든지 爲先事業에 有益하고 보람있는 일을 할수 있음에도 不拘하고 眼前의 財貨에 眩惑되어 各派에 分配되었다 함은 萬不當한 處事인 것이다. 嚴格하게 判斷한다면 누가낸 돈인데 누구, 누가 나누어 갖느냐 하는 것이다. 몇사람의 奸計奇巧한 所行이 아닌가 疑心스럽다. 갖다나눠야 個人이 任意로 쓰지 못할 것을 先祖任에 對하여 不敬과 得罪를 한 것이다. 眞實로 爲先事業에 得意하여 宗事に 關與하거나 宗事云謂한다면 그런 祖藉營私하지 못할 것이다. 只今이라도 大悟覺醒하여 原狀대로 復元하여 祖上任에게 辱되지 않게 文英公先祖任의 顯揚事業과 獎學基金에 充當해야 할 것이다.

宗中에 可用財産이 있으면 그것이 곧 禍根이 되어 族親間에 不睦하는 素地가 되고 紛爭의 根源이 되며 結果적으로 宗親間 分裂이 되며 族譜에서 割族한 例가 있고 甚至於는 先祖墓所까지 失傳하는 事例가 많다는 것도 事實이다. 宗事라는 私心을 버리고 眞心竭力하여 良心의 으로 爲先事業을 한다면 안될 理由가 없는 것이다. 編輯室

동원산업(주) 社長

金在哲(郡事公派)





# 서투른 장사꾼

提學公派 金泰吉  
哲學博士

前 서울大學校教授  
現哲學文化研究所長

옛날옛적에 가난한 선비가 있었다. 때거리가 없어서 굶기를 밥먹듯이 한다. 어른들이야 양반의 이를 물고 참기라도 하지만 어린이들이야 무슨 죄가 있어서 배고프다는 말도 못하고 참기만 하라. 부인이 보다못해 장사라도 좀 해보라고 선비에게 좋은말로 불평을 했겠다. 장사도 돈이 있어야 하지 빈손으로 무슨장사를 하란 말이오. 왜 뒤안의 감나무에 감이 익지 않았오. 그것이라도 따서 팔아 오시구려. 그래서 선비는 감을 따서 소쿠리에 지고 장사길을 떠난다.

초겨울이다. 농사일이 끝난뒤라 사람들은 모두 방안에 틀어박혀서 화로불만 쪼인다. 감장사가 왔다는 것을 알아야 팔리든 말든 결판이 날터인데 양반의 체통에 어찌 "감 사시오"라는 말이 상놈의 집 문앞에서 나오랴. 그렇다고 "감 사거라" 할수도 없는 노릇이다. 마침 새우젓장사가 지나간다. 옳다 됐다 하고 선비 그뒤를 따라간다. "새우젓 사시오!" "감두!" "감도 사라는 뜻이다. '감도'는 반말이다. 장사주제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마을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했다. 일설에 따르면 '감하구(감(減)하고)'라고 외치다가 새우젓장사에게 혼이났다고 한다.

나도 최근에 장사꾼이 되었다. 수년전까지는 분명히 선비(士)계층에 속해 있었으나 지금은 갈데없는 장사꾼(商)이다. <계간 철학과 현실>이라는 잡지를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 되고 말았다. 잡지를 발행할 생각은 향지만 장사꾼이 될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내 생각과는 달리 장사꾼으로 변모해 가는 나자신을 바라보게 된다.

제가 아무리 바보라도 철학잡지를 출판해서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다. 되도록 적자폭을 좁히려는 것이 우리 연구소의 간절한 소망일 따름이다. 기금만 넉넉하다면 적자폭을 걱정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많지 않은 기금의 은행이자로 잡지를 내는 형편이고, 적자폭이 크면 잡지발행을 지속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 잡지는 현재의 발행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계속 나와야 할 그런 귀중한 출판물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 적자폭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과제가 되는 까닭이다. 적자폭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정기구독자의 수를 늘이는 그것밖에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지 이미 오래다. 발행인을 비롯해서 편집위원 각자가 정기구독자를 구해보자고 다짐하면서 술잔을 높이 들기도 하였다. 우리잡지는 내용이 충실하므로 2,000명정도의 정기구독자를 얻는 것은 망쪼고 헤엄치거나 다름바 없다고 낙관하는 사람도 있었다.

편집위원의 한사람인 김 광수교수는 배포가 유하고 추진력도 강하다. 그가 좀 뛰어나다더니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하였다. 특지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고등학교 도서관에 우리잡지 보내기운동을 전개한 결과 40여 학교에 보낼수 있는 약속을 얻어냈다는 것이다. 이에 용기를 얻어서 다른 편집위원들 가운데도 동창생을 설득하는 정도의 적극성을 보이는 사람이 있었고 다소간 실적을 올리는 결과를 가져오곤 하였다. 그러나 '정기구독자 2,000명 돌파'라는 목표에 이르자면 아직도 갈길이 요원하다. 그토록 기세가 좋던 김광수 교수도 이제는 더 이야기를 건넬만한 자리가 없는지 요즈음은 잠잠하다.

다음은 잡지 발행인이자 연구소 소장이기도한 나자신이 나설 차례라는 자격지심이 들었고 다른 편집위원들도 말은하지 않았지만 나의 무능함에 느끼는 바가 있을것만 같았다. 옛날에는 앉아서 도장만 찍는 것으로 뒷자리를 지킬수가 있었다. 그러나 체력이 좋은 군인들이 정권을 잡은 뒤부터는 상황이 달라졌다. 대통령부터가 동분서주해야 한다. 일이야 잘하든 못하든 우선 동에 번쩍, 서에 번쩍 기동성이 있어야 한다. 비록 작은 연구소지만 소장은 모름지기 활동력이 있어야 할것이었다. 그러나 잡지를 싸들고 판촉을 나설 형편은 아니다.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때 넌즈시 말을 건네야 다. 물건은 구경도 시키지 않고 정기구독을 권할수는 없는 일이어서 우선 잡지 한권을 기증한다. 여러 사람들이 정성을 모아서 만든 잡지이니 읽어보아 달라고 부탁한다. 읽어보고서 좋은 잡지라고 생각되거든 정기구독자가 되어달라는 말까지 해야 할터인데 그말을 입밖에 내기가 '감 사시오' 보다도 더 어렵다. 결국 책만 한 권 주고서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 더러는 정말 좋은 잡지라고 칭찬하는 사람이 있다. 얼굴을 대했을때 뿐아니라 전화를 유정걸고 격려하는 사람도 있다. "수준높은 지성인의 잡지"라고 평한 사람도 있고, "내용이 너무 짝 들어차서 압도당한다"고 말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 기회를 포착하여 정기구독을 부탁하면 대개는 들어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차마 그 소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와 같은 칭찬을 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대학교수들이며 그저 보내오는 책만으로도 골치가 아플정도로 책의 홍수 속에 사는 사람들이다. 어찌 그들을 향하여 우리 잡지를 사라는 말이 쉽게 나오랴. 또 그런 순간을 놓치지 않을정도로 약삭빠른 것은 좋은잡지를 만

드는 사람답지 않다는 생각도 스쳐간다. 일종의 자기변명이요, 자기 위안이다. 근래에 새로 정기구독신청이 들어온것 있느냐고 여직원에게 가끔 물어본다. 수가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대답을 듣고 그 명단을 훑어본다. 그러나 나에게서 직접 책을 받은 사람들의 이름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장사숨씨가 서투르던 모양이다.

# 宗中人物紹介

## 國威를 宣揚한 韓國의 仁術



大司成公派 金 珽 萬  
醫學博士

- 一. 學會名 1. 自由中國 關節經學會 創立學術大會 및 심포지움
- 二. 開催場所 台北, 맥케이, 메모리, 알하스피를(馬階記念病院)  
※病院規模 1150寢床(서울大病院의 1.5배)
- 三. 招請者 1. 上記病院長  
2. 自由中國 內務 保健部
- 四. 參席者 内外國人 300名  
整形外科醫師 및 關聯學者
- 五. 招請資格 主催側 指名招請者(演題講師)
- 六. 講義演題 1. 關節염의 關節鏡 手術을 이용한 치료  
2. 膝슬(무릎) 關節 前方십자 인대재건술  
3. 슬관절 도달법의 비교연구
- 七. 招請演士 1. 美 國... 후양教授  
2. 日本國... 池内教授, 黑澤教授, 영창첸教授(中國人 歸化 日本人)  
3. 韓 國... 金珽萬教授(카톨릭醫大 聖母病院) 韓國 膝關節學會 事務局長, 文命祥教授(카톨릭醫大教授 整形外科長)
- 八. 手術示範 1. 美 國 후양教授  
2. 日本 池内教授, 영창첸教授  
3. 韓 國 金珽萬教授
- 九. 手術對象 및 種類와 內容  
4 名의 患者로 모두 膝關節 外側半月狀 軟骨의 圓板狀, 半月狀 軟骨 變연부破裂  
※內容 1. 上記手術은 技法上 가장 어려운 것으로 世界的으로 有名한 教授들의 手術示範을 배우고져 함임. 特히 池内教授와 후양教授는 關節經手術의 世界的 公認하는 大家임.  
2. 이 手術은 手術室에서 公開觀覽 및 討論(手術中 手術醫師와 觀客(醫師)의 討論) 및 講義가 이루어짐.  
3. 이 手術示範에서 正常的인 時間內(30分)에 餘裕있게 手術과 說明을한 教授는 韓國의 金珽萬博士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2 時間 以上 걸렸음. 그러므로 壓倒的인 實力差로 成功.

參考. 金珽萬博士의 1979年에 發表한 論文.

가토, 슬(膝)관절활액막 제거가 반월상연골 재생에 미치는 영향이란 研究論文이 世界整形外科 教科書에 실렸으며 이 論文은 膝關節 半月狀 軟骨再生의 基礎研究의 礎石이 된것으로 學界에서 認定을 받고 있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의 醫術이 世界에서도 優秀性을 發揮한 분이 우리宗人 中에서 輩出된 것을 자랑이라 하겠다.

# 自然의 攝理

포르른 지 草木들 뿌리있어 살찌거니  
비바람 몰아쳐도 뿌리있어 견디매라  
뿌리없는 나무에 꽃피울수 있으리오

눈보라 휘날리면 뿌리얼까 두렵던가  
잎사귀 떨어져서 뿌리위를 덮는고야  
사람의 슬기롭이 草木만도 못할건가

새봄에 새싹돋아 꽃피워 열매맺으려  
낙엽이 썩고썩어 밑거름 되는고야  
天理는 神秘로워 大自然의 攝理로다

(編輯室)



# 家庭教育

이 原文은 朴正基先生이 著述한 子女孫에게 訓戒한 글이기에 紹介한다

## 1.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세상에 어리석은 질문이 하나있다면 그것은(인생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아닌가 싶다. 이말은 그 물음에 대한 답이 이세상에는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孔子도 소크라테스도 시원한 답을 못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그러나 산다는 것을 두고 꼭 따질일이 한가지가 있다. 人生이 무엇 이냐가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이다. 人生의 目的은 자기를 닦고 남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自己를 닦는다는 學問을 익히고 精神을 높이고 마음을 닦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學問과 精神과 마음은 그 모두를 고르게 닦고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아득한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전되고 변혁하여 마침내 精神과 學問이 哲學을 낳고 이제는 科學이 이 宇宙를 支配한다고 사람들은 믿기 始作하였다. 그럴수밖에 없었던 科學은 정말 우리 人間에게 너무도 크고 많은 貢獻을 주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니까 科學이라는 것이 사람들 눈에 지금까지 믿어왔던 神보다 나은것처럼 비치는 것이다. 이제 精神과 學問과 마음같은것은 眼中에도 없게 되었다. 人間의 悲劇이 始作된 것이다. 더욱 咄咄한 일은 우리의 悲劇이 어디서 始作했나를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認定치 않으려는 點이다. 精神과 學問만 氣乘한 사람에게 마음의 平和가 있을 까닭이 없다. 마음이 없는데 平和가 있을 것이나. 그럼으로 自己를 닦는 일을 힘써야 한다. 自己가 基準이요, 自己와의 싸움이다. 그리고 어제의 自己보다는 오늘의 自己가 더 나아져야 하는 끝없는 修養의 길이기도 하다.

「남을 이롭게 한다」는 것은 善行을 하고 社會에 奉仕하고 때로는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남을 이롭게한다는 것은 적고, 크고 間에 自己의 犧牲이 뒤따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分明히 말해두지만 世上에 高貴한 일치고 犧牲이 따르지 않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는 法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貴한 것이고 수많은 高貴한 犧牲이 있으므로 그나마 사람들이 이만큼이라도 사람다운 生活을 하게 된것이다. 따지고보면 남을 이롭게 한다고 해서 自己한테 당장에 무슨 得이 되거나 自己學問에 보탬이 되는것은 勿論없다. 그러니까 世上사람들은 이런 일을 疎忽히 하는 것도 事實이다. 그러나 社會에 奉仕하거나 남을 위하여 힘쓰고 이롭게하는 이것처럼 우리 마음을 淸淨하게 하고 喜悅을 느끼게 하는 것도 世上에 따로 없다는것을 사람들은 철이 들고 人格이 갖추어지게 되면 알게되리라.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에 따라서는 시궁창을 뒤지는 생쥐같이 될수도 있고 저 蒼空을 自由롭게 나는 독수리도 될수 있는것이 人生이라 할것이다.

## 2. 孝 道

사람이 世上을 살아가기 爲해서는 根本이 될 基準이 있어야 할것이다. 그 根本을 우리 祖上들은 孝道에 두었다.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時代는 옛것이라곤 거의 찾아볼수 없이 모든것이 바뀌고 달라졌지만 祖上이 가르친 이 根本만은 변해서는 안되겠다고 하는 것이 내생각이다. 우리 祖上들이 어릴때 배우는 小學이라는 冊이 있었다. 이冊은 아주 오랜 中國의 宋나라때 朱子라는 어른의 著書인데 8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사람의 道理와 行動의 根本을 삼는다는 데 없이 좋은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한다. 사람의 道理나 人生의 眞理는 數學問題를 理解하듯 그렇게 금방 納得하기는 어려운 法이다. 그것은 智識이 아니라 智慧이기 때문이다.

小學에 쓰여지기는 800年前的의 일이지만 그 原理는 벌써 2,000年 前부터 中國의 聖賢들이 가르쳤던 內容들이다. 小學을 읽을때면 새삼스럽게 느끼는 일이지마는 어찌면 그리도 먼 옛날에 人生의 根本道理를 그토록 훌륭한 글을 說破할수 있었던가 하는 놀라운 점이다. 西洋의 경우에는 옛날이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토록 深奧한 人倫을 가르친 사람이 일찌기 없었다. 이제 小學에 나오는 明倫編에 孝道에 관한 가르침을 몇가지 引用할까 한다. 다음의 글은 눈으로만 읽어서는 안되고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읽도록 해야된다. 이토록 훌륭한 가르침을 曰可曰否한다는 것이 眞心으로 두렵기 때문이다.

가. 아들로써 부모를 섬길때에 거울에는 房과 衣服을 따듯하게 헤드리고, 여름에는 서늘하게 헤드리야 하며 밤에는 寢具를 깔아 잠자리에 드시도록 하고, 새벽이면 安否를 여쭙어 便安하신가를 알아보아야 한다. 또 밖에 나갈때는 반드시 다녀오겠다고 여쭙어야 하고 밖에서 돌아왔다고 여쭙고 父母任의 顏色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노는 곳을 항상 일정하게 하여야 父母가 근심을 앓하시며 學業에 힘써 올바르게 자라나야 父母는 기뻐하시고 父母 앞에서는 늙었다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나. 父母를 깊이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얼굴에 溫和한 氣運이 서려 있다. 溫和한 氣運이 있으면 自然히 기뻐하는 빛이 나타나게 되고 기뻐하는 빛이 있으면 態度까지 溫和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孝子는 마치 값진 白玉을 쥐고 있는 것같이 或은 물이 가득 담긴 그릇을 받들고 있는것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너무 嚴肅하고 威嚴있고 嚴正하고 謹嚴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父母를 섬기는 道理가 아닌 것이다.

다. 父母를 섬기는 사람은 비록 社會的 地位가 높다하여도 驕慢하지 않고, 아랫사람이 되어도 亂動하지 아니하며, 朋友相關하지 않고 和睦하게 지내는 것이 父母를 섬기는 根本이 된다.

라. 平素에 집에서 行動이 鄭重하지 못하거나 나라에 忠誠하지 못하거나 公職者가 行動이 愼重하지 못하거나, 交友間에 信義가 저버리면 모두다 不孝를 저지르는 것이다.

마. 伯俞가 허물이 있어서 그의 어머니가 매로 치니 伯俞가 울었다. 그 어머니가 말하기를 다른날에는 매로 쳐도 울지않더니 오늘은 무슨 까닭으로 우느냐 하였다. 伯俞는 對答하기를 前에는 어머니의 매질이 언제나 아프더니 이제는 어머니의 힘이 저를 아프게 하지못할만큼 弱해지셨으니 그래서 울니다.

## 3. 夫 婦

近代中國에 林語堂도 家庭을 두고 얘기하기를 (사람의 온갖 集團가운데서 惟獨 家庭만이 가장 자연스럽고 生物學的으로도 眞實하며 또 充滿된 뜻이 있는 生活單位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人間의 條件이나 集團도 이를 대신할 수 없다고 하였다. 굳이 故事나 有名한 사람들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家庭은 우리가 태어난 곳이요, 먹고, 자라고, 배운 곳도 家庭인 것이다. 뿐만아니라 온갖 시름을 모두 참고 견디고, 녹이고 엄마의 끝없는 사랑이 깃들인 곳, 平和와 幸福이 가득한 곳이 바로 家庭이다.

나는 天堂이 따로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왜냐고!! 그것은 家庭이 바로 天堂이니까. 그런데 銘心할 것은 家庭이라고 해서 모두가 天堂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事實이다. 天堂이 되려면 家庭을 이루는 기둥격인 夫婦가 眞實로 잘해야 한다는 것이다. 家庭을 이끌어가는데는 女子가 男子한테 順從해야 된다. 거기에 그 어떤 理由나 說明이 必要없다. 잘나고 못나고도 없다. 男子이기 때문이 아니라 男便이기 때문에 婦人은 條件없이 順從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집의 家訓인 것이다. 부질없는 걱정이었지만 男子라면 이 말을 해두어야겠다. 家貧思良妻하고 國難思良相이라 하였다. 이것은 史記에 나오는 말이고 女性의 直觀은 男性의 傲慢한 智識을 凌駕한다고 간디가 말하였다.

## 4. 友 愛

小學에 이런말이 있는 것을 보았다. 兄弟란 한父母로부터 形体를 나누어 받고 氣運이 連結된 사람이 兄弟인 것이다. 어릴때에는 父母가 그들을 左右에 손을 이끌고 앞뒤 아이의 옷깃을 잡고 당기면서 함께 데리고 다녔다. 밥도 같이 먹고 옷도 같이 입고, 배움에 있어 學業도 함께하고 비록 人情과 道理에 어긋나는 行動을 하는 사람일지라도 兄弟만은 서로 사랑하고 이게 兄弟라는 것이다. 이 世上에는 數十億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같은 피를 나눈 사람이 兄弟말고 또 어디에 있겠느냐. 생각해보면 정말 例事로운 關係가 아니다. 나눌것이 있으면 兄弟와 먼저 나누고 즐거운일, 슬픈일, 어려운일이 있을 때에는 함께 나누어 힘을 합쳐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겠느냐. 세상을 살아가자면 좋은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苦은일, 슬픈일이 있게 마련이다. 그리할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적은데 놀랄 것이다. 그것이 世上人心이 元來 그런 것이다. 그러던 兄弟가 長成하게 되면 諸各己 아내를 갖고 제子女를 갖게 되니 그때부터 兄弟사이에는 나의것, 너의것이라는 區別이 생기게 된다. 實로 놀라운 指摘이다. 좋던 友愛도 시집장가를 가면서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것이 事實이며 現實이니 미리 알아서 자기의 장래를 對備하는 것이 마땅하다. 兄弟間에는 形便이나 處地가 너무 差異가 나도 問題가 생기는 것이요, 그러니 자랄때부터 最少限의 教育의 惠澤을 均等하게 갖도록 父母도 本人도 努力해야 된다.

사람의 根本은 人倫에 있는것이 아니겠느냐. 사람의 根本이라함은 다른 일에 앞서 으뜸가는 것이며 어느것 보다 앞서서 반드시 行해야 한다는 뜻이다.

### · 分수를 아는 사람

分數를 따르는게 世上順理에 따르는 것이라 하였다. 분수를 알면 危殆롭지 않다고 하였다. 돈이란 貴重한 것이다. 그러나 돈이란 또 무서운 物件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돈에는 더욱 분수가 따라야 한다. 분수에 맞게 벌어야 하고 분수를 알고 써야한다.

첫째. 돈의 분수는 儉約에 있다. 儉이란 質素儉朴 함을 말함이요, 約이란 節約緊縮 한다는 말이다. 儉約은 實로 마음과 氣風이다. 奢侈와 浪費는 敗家亡身의 根源이 된다. 그 까닭은 마음과 氣風이 解弛한 緣由로 儉約을 外面해 分數를 어긴 탓이다.

둘째. 돈의 분수는 貯蓄에 있다. 貯蓄은 돈을 모아 쓰는 재미보다 貯蓄하는 마음이 所重하기 때문이다. 貯蓄하는 사람은 돈이 아까운줄을 아는 사람이다. 돈이 아까운줄 아는 사람은 헤편 돈을 쓰지 않을 사람이다. 또 작은구멍이 큰 배를 가라앉힌다는 理致를 아는 智慧가 곧 分數를 아는 까닭이다.

셋째. 돈의 분수는 慈善에 있다. 돈을 나누어 쓸줄 아는 사람은 돈이 많아도 좋은 것이다. 돈이 많은게 허물이 아니라 돈을 나누어쓰지 못하는 貪慾이 분수가 없는 것이다.

富는 糞尿와 같아 그것이 蓄積되면 惡臭가 풍기고 뿌려지면 거름이 되어 肥沃한 땅이 된다고 톨스토이의 말이다. 또한 大學에 나오는 말이지만 仁者는 以財發身하고 不仁者는 以身發財한다 하였다. 먼저 집안을 돕고, 이웃을 돕고, 불우한 사람을 도와라. 그러나 태만한者, 分守를 모르는 者는 도와줄 必要가 없다.